

18_4_한국어_錦織遺跡

니시고리 유적[초렌지 절터]

니시고리 유적은, 덴지 천황의 오쓰궁 소재지로서 유명합니다만, 안정된 토지였기 때문에,

조몬 시대~현대까지의 생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흔적의 하나가 초렌지 절터입니다.

초렌지 절은, 엔조지 절(미이데라 절) 부속의 작은 암자였던 것이 1471년에 정토진종의 절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

발굴 조사에서는, 에도 시대의 초렌지 절의 돌담이 발견되었습니다.